

16나한 모신 법당 응진전은 기도처로 유명

오랜 세월 이름도 많았던 연주대(戀主臺)

조선시대 도성에서 삼각산 비경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은 관악산이었다. 관악산 봉우리 모습으로 빼죽빼죽해 멀리서 보면 화로 같다. 한양을 도성을 정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었다. 그래도 이만한 곳이 없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을 세워 불을 감시하는 한편, 송례문 현판을 세로로 제작해 화기를 높였다. 후에 송례문 남쪽에 연못[南池]을 만들어 수(水)로 화(火)를 다스렸다. 관악산과 도성 사이 한강이 있는 것도 위안이 되었다.

화기가 가득해 조정의 근심이 필멸정 관악산은 봉우리마다 풍광이 남달라 문인들이 자주 찾은 명소였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다. 관악산 정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암자가 있다. 연주대(戀主臺)이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주인을 연모하는 뜻이다. 그런 내용이 보니 세월이 지나며 이곳에 여러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고려 신하가 사라진 왕조를 연모하는 의미이다. 조선조 이야기로는 왕위에 대한 안타까움에 실렸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왕위를 버리고 이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주군을 연모했다는 것이다.

세상 이야기는 모두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곳의 사연 역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라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의미를 붙이고 싶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 꺾아지른 듯 서있는 암석 위에 자리한 이곳에 오면 딱딱한 능선을 오르느라 근심을 내려놓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연주대를 보면 욕심이 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대에는 이곳을 불성봉(佛成峯)이라 불렀다.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주대는 처음부터 그 이름은 아니었다. 조선 초 이곳을 찾은 문인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영주대(靈珠臺)이다. 세종 21년(1439)에 태어나서 연산군 10년(1504)에 졸한 성현(成俔)이 남긴 <허백당집(虛白堂集)>에 관악산에 올라 영주암에 이르렀다는 시가 있다.

이보다 앞서 관악산에 올랐던 성간(成侃)은 관악사에 머물면서 관악산을 탐사한 <유북암기(遊北岩記)>를 남겼다. 그 기록을 보면 승려의 안내로 관악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풍광을 감상했다. 그런데 관악 북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자 성간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북쪽은 숲이 깊고 바위가 험해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도 성간은 꼭 가보고 싶어 탐봉을 배어 내고 넝쿨을 잡고면서 북벽에 이르렀다. 바위가 집 천장같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빙 둘러서 천 길이나 되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아찔하였다. 마침내 정상에 올라 두 다리를 뻗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나오는 관악사는 폐사돼 터만 남아있다. 그 터에서 보면 영주대가 있는 곳이 북쪽이다. 지금 우리가 봐도 경관이 수려하니 예전인들 수려하지 않

영주대 → 염주대 → 연주대
양녕·효령 대군 경복궁 바라보던 곳
욕심절로 없어진다하여 '불성봉'
법당에는 석가·약사여래·16나한 봉안



연주대 연주암 응진전. 세평 남작한 법당에는 석가 여래상과 약사여래상 16나한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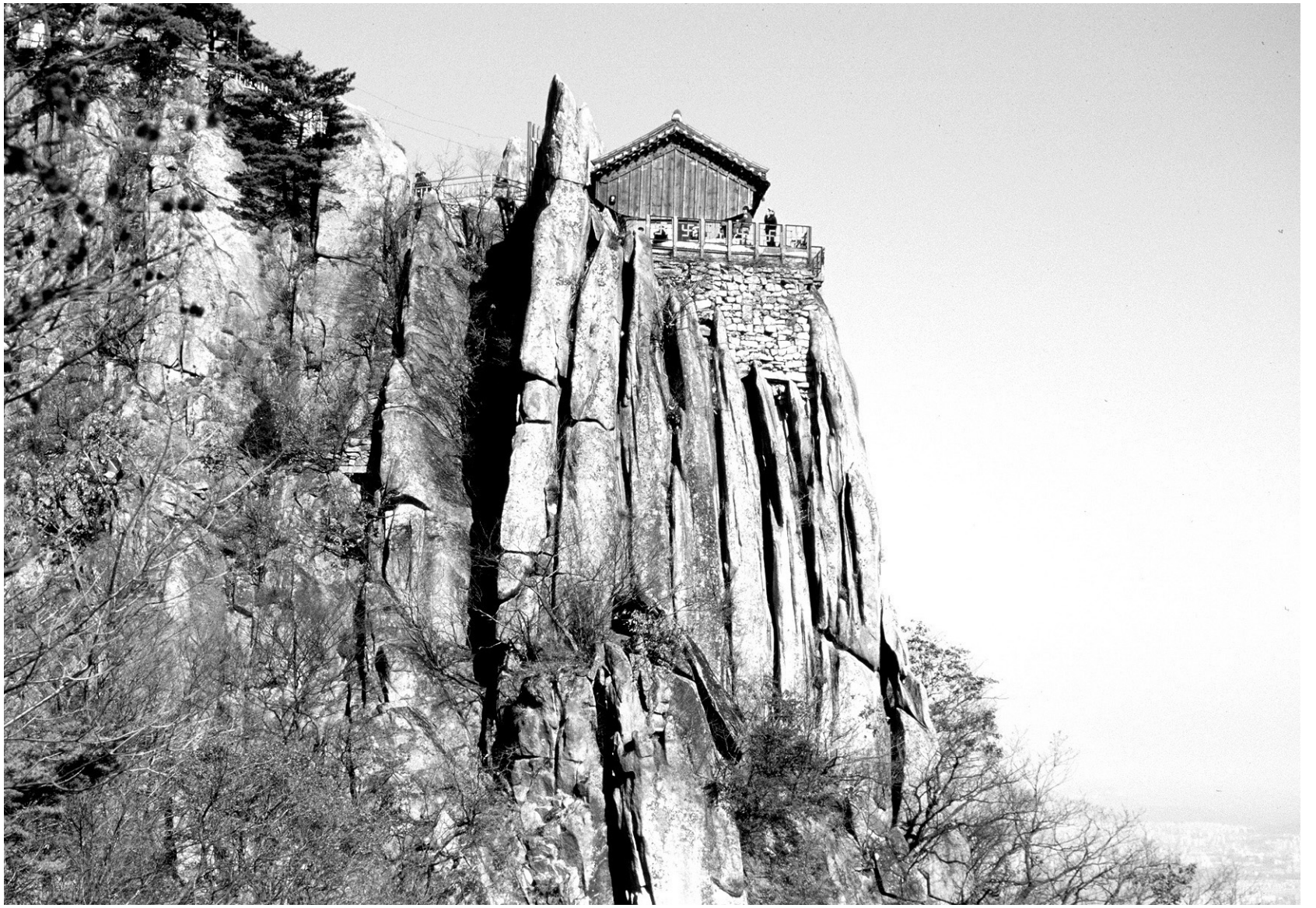
았을까. 그런데 성간은 영주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냥 그 광경만 바라보며 '조물주가 나를 위해 펼쳐 놓은 것 아니겠는가' 하고 자연풍광에 대해 만족감만 전하고 있다.

숙종 4년(1678) 4월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자신의 문집에서 관악산 영주대를 오른 감회를 남겼다. 지금이야 난간도 있고, 줄도 있어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오르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시절 이곳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허목은 다녀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관악산에 들어가 영주대(靈珠臺)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지금 생각해도 두려워 떨리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길과 비교하면 오히려 평탄한 길이었소. 늙은이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에 다만 탄 사람들이 알까 두려우니 우스소. 못다 말하오."

그밖에도 17~18세기 발간된 안헌경(安獻敬)의 <구포집(龜浦集)> 심유(沈維)의 <오탄집(梧灘集)> 김유의 <검재집(檢齋集)> 이만부(李萬叟)의 <식산집(息山集)>을 비롯해서 이익(李瀾)이 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 등 여러 문집에서는 이곳을 영주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익은 1704년 4월 관악, 원각 두 절을 지나 영주대 아래에 이르렀다. 영주암 터에서 휴식하고 드디어 대에 올랐다고 적고 있다.

영주암은 이후 염주암(念主庵)으로 불렸다. 정조 13년(1789) 12월 관중주부사 이복원(李福源)과 체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을 때, 진안대군(鎭安大君)이 위화도 회군 이후 가족을 데리고 세상에 숨어 살 뜻으로 철원(鐵原) 보개산에 들어가 은거한 것과,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가 일에는 일체 간여를 않고 태



꺾아지른듯한 암석 위의 연주대 연주암. 조선 숙종 4년 허목은 "염주대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산의 돌이 매우 험준하여 두려워 떨리오"라는 소감을 남겼다.

조로부터 토지와 집을 하사 받아 고향인 함흥으로 가서 여생을 보낸 것에 대해 훌륭한 일로 말하면서 양녕대군의 덕행과 의리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종이 온전히 보전해 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였다. 그러자 체제공이 "관악산 제일봉(第一峯)에서 경복궁이 바라보입니다. 양녕대군도 필시 여기에 올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차일(遮日)을 쳤던 흔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주대(念主臺)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체제공의 말에 의하면 주군을 사모했다는 연주대(戀主臺)의 내용은 그 무렵 세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양녕대군의 이야기에 어떻게 효령대군이 더해졌을까? 아마 효령대군이 사후 과천 북쪽 동적리(同積里)에 묻히면서 뒷날 여진 이야기 수도 있다. 그 후 이곳에 효녕각(孝寧閣)이 세워지고 영정(影軸)을 모시면서 더욱 굳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정조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체제공은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정조 10년(1786년) 관악산에 오른다. 산행을 한 소감을 적은 것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이다. 여기서는 이곳을 연주대(戀主臺)로 적고 있다. 그 후부터는 19세기 중반 편찬된 박윤목(朴允

默)의 <존재집(存齋集)>에도 연주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후부터는 그렇게 불린 것 같다. 이런 과정을 보면 연주대는 18세기까지 영주대로 불리다가 18세기 후반 영주대로 불리다가 연주대로 굳어지느 꼴이다.

연주대 전각은 응진전이다. 나한을 모신 곳이다. 세평 남작한 법당에는 석가여래상과 약사여래상 그리고 16나한이 모셔져 있다. 나한은 아라한을 말한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아라한은 깨달음을 이룬 성인을 칭했다. 부파불교 시절 수행자들은 수행에 정진해 일곱 번의 윤회를 남겨 놓은 단계를 예류과라 했다. 한 번의 윤회를 남긴 단계를 일래과,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단계를 불한과, 그리고 깨달음을 이룬 단계가 아라한과인 4과실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이라 한다. 또한 응공(應供)이라 번역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공양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다. 여래의 열 가지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이다.

이참에 공양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는다. 가면서 여러 가지 공양물을 준비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땐 불전을 놓는다. 많은 불자들은 이런 공양물을 부처님께 시주

하여야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공양물을 갖고 가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분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불교에서 좋은 결과는 자신이 지은 선업의 결과이다.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참배하는 일 자체가 선업이니 복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져온 중생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는가.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의 위치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500나한, 1200나한 등 모시는 숫자도 많아졌다.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든 번뇌를 끊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 때문에 범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나한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연주대 나한의 영령 역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다.



김경집/전주국대 교수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승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한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 자 격 : 스님 및 식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개 강 일 : 영화복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 과 목 : ◆바라작법 = 천수, 사다라니, 관옥화외계, 요삼, 춤부다라니(예수재전점심사 바라작법) ◆착복무작법 = 도량계, 향화계, 다계, 음납, 귀경이, 운심계, 오공양, 법고무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통소다루기 (작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면 학인에게만 전수 ◆법당복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제, 해상용왕제, 시다림 등 ◆대재의식반 : 영산대제, 생전예수대제, 무차수륙대제, 국가적위령대제 등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라이운, 고승사라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의식 등 ◆핵심 경전 강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계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흥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교육과목 : 기초 -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광석, 타법
기본 - 천도제의식 : 1. 시련, 대령, 관옥, 39위, 2. 봉청깃소리, 대령소(고혼소)복천계, 향화청(깃소리),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3.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삼바라, 화의제바라 5.나비춤(도량계, 다계)
고급 - 생전예수제, 수륙제, 방생, 시다림, 종사영반, 다비식, 종사이운, 쾌불이운

2.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오후 6시
4.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대학교 부산서부중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02호)
6.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중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접수기간 : 상시
8.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국 불교 태교중 부산서부중무원

금강경 강의

홍법스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저의 눈높이 만큼 금강경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00~12:00 1회
오후 19:00~21:00 2회

준비품 : 금강경 책자와 필기구
대 상 : 누구나 공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동참금 : 월 5만
*설법 내용으로도 좋습니다.

2.氣 명상 수련반 모집
3. 매일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
4. 빙의 현상, 현대 불치, 난치병 치료
5. 자기 원불과 기도방법 알려 드립니다.
6. 생활, 인생상담 및 제반사항 상담
7.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춤, 오공양 작법, 태평소 대행

부산 진구 부암 3동 458-141
참회 관음기도도량 홍법사
향림 홍법 합장
문의 : 010-2570-8512